

중국 항모, 오키나와 위협 기동…중·일 군사 긴장 최고조

랴오닝함 전단, 오키나와 본섬 ‘ㄷ자·S자’ 포위 훈련 실시
“중·러 폭격기 동시 비행…일본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동원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10일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은 지난 5일부터 동중국해를 거쳐 오키나와현 해역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7일까지 오키나와섬(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감싸는 듯한 항적을 보이며 위협 기

동을 펼쳤다. 이어 랴오닝함은 9일까지 오키나와현 동쪽에 위치한 미나미다이트지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S자’ 궤적을 그리는 등 사실상 포위망을 형성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항모 전단은 미나미다이트지마와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나오 암초) 사이 해역을 통과해 남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성은 지난 8일 하루에만 랴오닝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가 약 40회 이착륙했다고 집계했다. 5일부터 나흘간 이뤄진 이착륙 횟수는 총 140회에 달한다. 특히 9일에는 보급함까지 합류한 정황

이 포착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중국군이 한 달 이상의 장기 해상 훈련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난세이 제도 일대에서의 훈련을 상시화하려는 의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가 중국 함정의 주요 태평양 진출로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이번처럼 오키나와섬을 완전히 에워싸는 형태의 항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로장 역시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섬과 미나미다이트지마 사이에서 함재기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 해군의 활동 변경 확대를 경계했다. 일본 자위대는 호위함 ‘데루즈키’를 파견해 밀착 감시에 나서는 한편, 중국 함재기 발진 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며 대응하고 있다.

하늘에서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방위성은 9일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J-16 4대가 합류해 호위 비행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함께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항모의 태평양 전개 시기에 맞춰 중·러가 공동 비행을 한 것 또한 최초 사례다. 중국 군사 전문가 장젠서는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이번 훈련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면서도, 양국 공군 편대와 랴오닝함 전단이 해상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의 연합 작전 능력이 해군과 공군의 화력을 통합해 적의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 6일 중국군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 레이더 조준(조사)을 감행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이번 도발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양국 전투기 간 거리는 52km와 148km로 즉각적인 충돌 위험은 없었으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이를 공격 직전의 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나, 중국 측은 비행 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어 양국 간 진실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종전안 받아라” “영토 포기 안돼”

트럼프 수용 압박에 젤렌스키, 헌법·국제법 근거로 ‘불가’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안 수용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양보’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앳츠옌 문답을 통해 “러시아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헌법과 국제법,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는 영토를 포기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는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한 돈바스 전체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다”며 “젤렌스키는 상황을 직시하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장남이 ‘우크라이나 손절’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그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그는 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합의를 종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도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

나의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회동하고 나토 및 EU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는 등 36시간의 유럽 순방 강행군을 펼쳤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된 문건을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백한 일정 탓에 전통적인 기자회견 대신 메신저 음성 메시지로 기자들과 소통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개전 초기부터 보여준 그의 적극적인 실시간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카리브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미국 해군 소속 F/A-18 호넷 전투기.

/연합뉴스

미, 베네수엘라 군사 압박…무력 충돌 가나

美 전투기 2대, 카리브해 상공 위협 비행…마두로 정권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위해 수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 코앞까지 접근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 정권의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F/A-18 호넷 전투기 2대가 전날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에서 30분 넘게 비행 작전을 수행했다. 비행추적 데이터상 이들 전투기는 영공 내부로 진입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B-52나 B-1B 등 전략폭격기를 전개했을 때보다 훨씬 근접한 거리에서 위협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는 “통상적인 비행 훈련의 일환”이라며 직접적인 도발 의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였으나, 사실상 미군의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카리브해 일대에는 미군의 핵심 전략 자

산이 대거 집결해 있는 상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호를 비롯해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90기 이상의 미사일로 무장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배치돼 베네수엘라를 포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트렌데아라과(TdA)’ 등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마약 차단 작전 범위를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실질적인 목표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축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사임과 망명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연합뉴스

한국 ‘2028년 유엔해양총회’ 칠레와 공동 개최

대한민국이 오는 2028년 열리는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국을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으로 지명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가 나왔으며 기권표는 없었다. 이번 결의에 따라 한국은 2028년 6월 본행사를 주관하며, 해양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된 칠레는 본행사에 앞서

2027년 고위급 사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급 국제회의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으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3차 회의 당시 55명 이상의 각국 정상급 지도자를 포함해 1만50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차기 총회에서는 ‘수중 생명’을 대주제로 해양오염 방지와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보호구역 지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시급한 해양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은값, 금값 되겠네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 선을 넘어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일(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기준 은값은 전장보다 4.5% 급등한 온스당 60.77달러를 기록했다. 은값은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뛰며 금값 상승률(60%)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랠리는 실물 시장의 공급 부족과 투자 수요 급증이 맞물린 탓이다. 지난 10월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인도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수세로 런던 시장에서 기록적인 공급 압박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